

# 소설 심사평\*

고재중

작년에 비해 올해 5·18문학공모 소설부문 응모작들의 수는 늘어난 편이었다. 그러나 작품의 질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였다. 주로 후일담의 형식으로 5·18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 많았다. 유년 화자가 등장하고, 잘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등장하고, 풍문으로 들리는 학살의 소식,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에게 들이닥친 불행 등등의 '상투적인' 서사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았다. 계엄군이었던 자와 희생자였던 자의 화해 서사 역시 식상하긴 마찬가지였다.

「홍초저고리」 「황설」 같은 몇 작품이 그나마 후일담 중에는 오롯한 문장과 형식미를 갖추고 있어 읽을 만했으나 그 역시 문학의 새로운 자산으로 편입시키기에는 고루한 바가 없지 않았다. 고심 끝에 「쇼를하라」를 당선작으로 결정했다. 젊은 노동자의 병리적인 심리 상태를 통해 FTA문제와 그를 둘러싼 노동 현장 문제를 실험적인 형식에 담은 이 작품은 5·18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. 그러나 5·18을 단순히 27년 전에 있었던 열흘간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모순의 지점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이해한다면,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는 5·18정신을 현재까지도 유효한 살아 있는 어떤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에 분명했다. 5·18문학으로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 작금의 문제에 대한 살아 있는 비판 정신을 높이 사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한다.